

파주시에 인쇄 · 출판협의회체 가동된다

올 3월부터는 파주시에 인쇄 · 출판 협의회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산 · 관 · 학 협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협의회체는 파주 지역의 특성화 산업인 인쇄 · 출판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유능한 전문 기능인의 배출이다.

시발점은 파주공업고등학교(교장 이영순)가 지난해 2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우수실업계 고등학교 공모전에서 산업디자인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 계기가 됐다. 파주공고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5일, 관련 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인쇄 · 출판협의회체에 대한 실무 협약을 통해 가시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체에는 신무림제지, 동양잉크, 보진재 등을 포함한 16개 기업체가

인력 공급에 대한 수요자로 참여하고 파주공고와 더불어 중부대, 서울정수기능대, 청강문화산업대학 등이 전문 인력 공급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과 학교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정부 기관으로는 경기도 교육청과 파주 시청이 참여해 세미나 장소 제공과 기업체와의 연결 주선, 각종 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현재 산업디자인과와 시스템분석화공과 등의 전공이 개설된 파주공고를

올 3월,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 인쇄 · 출판기능인 양성에 주력

통해 협의회체 설립이 추진된 배경과 파급효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협의회체 설립의 의의

이번에 추진된 협의회체 설립의 의의는 바로 파주출판산업단지와 인쇄산업단지라는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를 토대로 막대한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파주출판산업단지는 정부의 산업 특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무려 15년이라는 힘겨운 조율 끝에 지난해 하반기



▲파주공업고등학교 전경



▲파주출판산업단지내의 유통시설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인쇄·출판 전문으로 하는 개발 단지다. 교하면 문발리 25만 평 부지에 조성된 파주출판산업단지는 '21세기 출판센터의 혁명'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현재 활발한 조성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파주시 조리면 뇌조리 일대 5만여평에 조성중인 인쇄산업단지도 60여 인쇄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처럼 파주지역에는 출판사·유통회사·인쇄사·출판창고와 같은 인쇄·출판관련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 인구는 20여만명에 이른다. 특히 출판물의 생산과 유통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이처럼 협의체 설립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인력 공급과 수요 확보'라는 측면 외에도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질이 고급화·현실화되기 때문에 맞춤형 인력 공급이 이뤄진다.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해당 기업이 직접 참여해 제공하고 기기 등 추가적인 장비의 지원도 바로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꼭 맞는 현장 인력을 적기에 양성할 수 있고 취업을 준

는 시너지 효과는 맞춤형 인재 양성의 조기화로 결국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불황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하는 국내 여건과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수출마저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번 협의체는 단순히 '기업과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전문 인력 공급의 시발점

이와 같은 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의 공급원이 되는 관련 학교들의 입지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원되는 육성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성 있는 수업 방향의 설정은 협의체 운영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파주공고는 산업디자인학과와 시스템분석화공과 등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첨단 기기를 도입해 인쇄·출판 전문 기능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됐거나 추진중인 학과는 세분화시켜 각 기업체와의 업무에 맞게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참여하는 대학들의 움직임은 더욱 다각화된 패러다임을 활용할 수 있다. 중부대, 서울정수기능대, 청강문화산업대학 등은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특성화 학과 육성 ▲계약형 학과제 설치 ▲산업체 위탁과정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교수 임용 및 평가제도 개선 ▲산업계출신 교수 임용 ▲산학간 인력교류 ▲공학교육인증제도 도입 등 교육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전담교수제도와 현장실습학점제도(인턴제)가 도입되는 등 산학협력에 대한 제도 자체가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들의 다각화된 움직임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 인력은 다시 파주로 환원되는 피드백 시스템의 중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장흥일 기자)



▲동양인크가 제공한 기자재로 실습중인 파주공고 학생들

이라는 산업적 측면 이외에도 책이라는 테마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인쇄·출판 문화의 메카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 구성은 이렇게 거대한 인쇄·출판 시장에 인력을 배출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또 이번 협의체 설립의 의의는 무엇보다 이러한 물·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파주시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기업체와 학교간의 산학협정을 더 견고하게 묶었다는 데 있다. 즉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적절한 책정과 효과적인 배분이 가능해진다.

비중인 예비 사회인들은 기업의 생리와 기술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받는 것이다. 또 이를 지원하는 관공서의 관련 부처는 책정된 예산의 낭비 없이 기업이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파주출판산업단지와 인쇄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클러스터(산업 집적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시·공간의 낭비를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역 특성화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기능인 교육으로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 아울러 파생되